



3면

전북 경제인 등 "이제명 지지 선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음 4월 26일) 제374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김관영 도지사과 임성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24년도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심의·의결한 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북자치도, 새만금 개발 '속도전'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가동... MP 연내 재수립·핵심 인프라 구축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어왔던 새만금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개발 속도전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새만금기본계획(Master Plan, MP) 재수립을 완료하고, 해수유통 확대를 비롯한 수질개선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 실질적인 개발 여건 조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도청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11월 새로 위촉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산업·항만 수요,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MP 재수립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변도시의 기능을 단순한 주거·관광 중심에서 항만 배후 기능을 갖춘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해 산업용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2국가산단 지정 및 조성 등을 통해 배후도시용지를 산업용지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수질개선 성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따르면,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는 도시용지 기

준 3등급, 농업용지 기준 4등급이라는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

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MP에 '일 2회 해수유통'을 명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배수갑문 설치, 조력발전,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 등 중앙기 수질개선 시설 확충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이는 수질관리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개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SOC 확충도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2029년 국제공항, 2031년 인입철도로 구성된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적기 완공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국비 확보 및 부처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남북3축 도로 등 주요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항만 분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 조성사업의 국가재정 전환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배후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민간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해양수산부의 '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민간 투자 부담을 줄이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과 정책 결정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국장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재정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분위기가 예전보다 유연해진 만큼 MP 재수립과 병행해 예산 확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무인기 실증 테스트베드 등 사업성이 높고 글로벌한 기업 등 미래형 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과 규제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김미정 국장은 "깜깜이 사태 이후 지역·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국가에 산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 새만금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내란 종식 선봉 돼 달라"

박용진 민주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
전북 방문해 도내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

22일 전북을 방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사진)이 "전북이 내란 종식의 선봉이 돼 달라"며 도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의를 달리, 우리는 '미래 고속 열차' 표를 이미 끊었다. 전북이 승객 1번 좌석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유세 전, 완산구 모이골 전북지사에서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효자동 포스코아파트 경비, 미화 노동자를 찾아 여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선 사전투표 및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박용진 위원장은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국민화합위원회 전북지역 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재훈 기자

호남권역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

전북·전남·광주 공동 기획... 국가공모사업 선정

2030년까지 수소 등 고급인력 양성... 전북, 74명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가 주관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학연 체계를 기반으로 호남권역 내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특화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주관기관과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이며, 총 230명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 전북은 74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2019)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선정(2022) △국가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 등 에너지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장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호남권 3개 시도는 지난 2월 사업공고 직후 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서 4월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역 혁신기관, 대학, 기업들과 함께 지·산·학 연계 교육 및 기술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실무 중심형 전문인재 배출과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에 나선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에너지산업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호남권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과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전북이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 캠페인